

##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관하여

이 의 재

생산기술연구원 교수 및 수석연구원

### Abstract

Present "Regulation for Romanization of Korean" is not very well observed by most of Koreans because it is self-contradictory, inconvenient, awkward and difficult to follow. In this paper, the problematic issues are described in detail, and the corrective reforms are suggested. Emphasis is placed on the reasonability, clarity and convenience in use. Capitalizing the first letter of each syllable in a word, the author demonstrates a possibility of remarkably fashionable romanization for Korean language, *i.e.* HanGeul.

### 1. 머리말

현행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은 1984년 1월에 그 전까지 사용되어 오던 한글학회안 중심의 것을 표음 주의 원칙으로 대폭 개정한다며 당시 문교부가 새 안을 마련, 고시한 것이다. 그런데 그 이후 이 개정 고시된 규정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오랫동안 무시당해 왔고, 심지어 관공서, 학교, 공공 시설물, 명함, 주소 등에 사용되고 있는 로마자 또는 영어식 표기를 눈여겨보면 그 현행 표기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고 마구 혼동되어 있는 상태임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혼란 상황을 국가 담당 기관인 국립국어 연구원의 송민 원장도 한국어문규정집(1995) 머리말에서 인정하면서도 그 원인을 "일반 국민의 무관심에도 있다"고 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의 불편 하소연을 경청하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혼란 상황의 원인은 현행 표기 규정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 불편함에 있다는 것을 알 것이고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물론 예전의 한글학회안이 불충분하여 새 표기법을 내 놓은 터이겠으나, 그 개정한다는 표기법이 자체 모순과 미비점들로 얼룩져 있고 상식과는 동떨어진 상태이므로 대중의 공감과 호응을 받을 수 없다는 데에 실제 심각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또, 로마자 표기는 외국인을 위한 것이므로 내국인은 상관하지 말고 한글만 읽으면 된다는 식의 궤변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는 생각하고 열 가지를 생각 못한 것이다. 왜냐하면 외국인에게 우리를 알리는 일은 어느 특정 집단 또는 정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국어와 한글을 매일 쓰고 있는 우리 국민 모두의 몫이기 때문이다.

### 2. 현행 표기법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법

#### 2.1. 현행 표기법에 나타나는 부호들.

현행 표기법 제 1 장의 제 2 항에 "로마자 이외의 부호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예전에 사용하지 않던 반달표(breve)와, 유기음(aspiration)을 표기하기 위해 어깨점(apostrophe)을 부가적으로 동원하고 있다는 것은 자체 모순이다. 특히 반달표는 많은 국민에게 그 이름조차 생소하고 타자기나 컴퓨터의 자판으로도 표기할 수 없는 불편한 부호이

다. 자판으로 입력시킬 때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또는 편의상 반달표와 어깨점을 빼고 치는 데, 그런 상태의 단어를 읽어보면 모음과 자음이 달라져서 본래 단어의 음가가 크게 변질되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부호 중 어깨점 문제는 자음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2.2.에서 자세히 기술하기로 하겠고, 여기에서는 모음과 관련된 반달표 문제에 대해서만 논해 보자. 사실 모음 표기에 관해서는 이 문제 이외에는 현행 표기법에 별 하자가 없고, 이 반달표 문제의 해결책은 아주 간단하다. 즉, 현행 표기법의 반달표를 사용하는 대신, [서울→Seoul]의 예로부터 해당 모음의 로마자 표기를 위해서 /e/를 첨가하여 구별 표기하던 예전의 방법으로 돌아가면, 자연스럽게 쉽게 해결되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모음 /ɨ/를 /ae/로 표기하고 있음에서 보듯이 /e/가 첨부되어 사용<sup>1)</sup>되는 점에서 공통이니 누구나 쉽게 기억, 사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ɨ/는 /eo/로, /ɨ/는 /eu/로<sup>2)</sup>, /ɨ/는 /yeo/로, 그리고 /ɨ/는 /eui/로 쓰면 우리의 모음 표기는 통일성 있고 명료하게 정돈된다.

## 2.2. 현행 표기법의 “표음 주의 원칙”의 함정.

현행 표기법의 제 1장, 제 1항에 표음 주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것은 단어의 (특히 한자어의 경우) 어원을 알 수 없게 만들어 버리게끔 되어, 그 파생되는 심각한 문제를 전혀 고려치 않은 잘못된 원칙이다. 예를 들어 “신라”를 “Shilla”로 적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표기법에 대해서는 많은 이에게 상당한 거부감이 느껴지는 것이 사실일 뿐 아니라, 실제로 “설라”와 구별이 되지 않아 뜻이 잘못 또는 달리 전달되고 혼란을 일으키게 되는 것 등, 문제가 많다. 한자로 표기되지 않는 순수 우리말의 경우를 위해서라면 일차적으로 소리나는 대로 적는 표음 주의 원칙을 채택하는 것은 당연히 옳고 합리적인 것이나, 여기서의 논제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닌 포괄적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다.

국어에서 표기와 발음이 다른 경우에 그것은 인간의 구강구조상 자연히 그리되는 것인데 크게 다르지 않은 발음기관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다고 어원을 무시하고 소리대로 표기해 주는 것이 과연 외국인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의문이다. 그러한 잘못된 표음 주의 원칙을 내세우니, 예를 들어 “독립문”→[동님문]처럼 한자말의 한글 표기에서도 모두 어원을 무시하고 발음나는대로 적어야 한다는 논리와 같은 것이니, 이런 표음주의식 표기는 누구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진정 외국인들을 위해서라면, 어원을 살려서 표기해주는 것이 오히려 그들이 한글을 체계적으로 쉽게 익힐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들이 옳게 발음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그들 자신이 신문, 잡지에서 이미 하고 있듯이 해당 고유명사의 로마자 표기 옆에 적절한 발음을 위한 보조 부분을 괄호 안에 넣어 병기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자긍심을 지키는 길이기도 하고 논리의 합치도 기하여, 일거삼득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문자 표기는 문화생활의 일 단면이다. 어느 누구의 점유물이어서도 안되고 또 억지로 강요해서도 안된다. 여러 가지 의견으로부터 여론을 하나로, 합리적 방법으로 통일시켜가는 분위기 마련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한글은 우리의 글이지 외국인의

- 
- 1) 서양단어들에서 /e/는 묵음처리되거나, 별 자체 의미없이 발음상 첨가하는 부호정도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 2) /eɔf/, /eu/의 표기는 음성학적인 근거도 지니고 있다. 즉, /eɔ/는 발음할 때 혀의 위치가 /e/와 /o/의 높이에 있고 /eu/는 /e/와 /u/의 높이에 있다. (이현복, 말소리3호, 1981)

글이 아니므로, 우리가 주체가 되어 “한글의 로마자 표기”는 우리 방식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영어, 독일어, 서전어, 불어, 서반아어, 이태리어 등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로마자를 공통으로 사용하나 각각 전통적으로 그 표기 방법이 다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중 어느 것도 따를 필요가 전혀 없다. 다만 그들을 참고로 하여 그 공통 규칙을 최대한으로 살려 주고, 우리 사정에 맞게끔 새롭게 정해야 한다.

미국인 라이샤워 역사학 교수가 일찍이 1930년대 Harvard 대학원생 시절에 한글의 로마자 표기에 관해, 일본어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어의 몇몇 자음 /ㄱ, ㄷ, ㅂ, ㅅ/이 한 단어의 첫음절 초성으로 발음될 때에 서양어와는 달리 무성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음절이 같은 의미를 지니고 제 2 음절 이상의 위치로 갈 때는 유성음으로 발음되는 우리말의 특성을 잘 모른 채, 그들 자음에 상응하는 로마자로서 각각 “k, t, p, ch”로, 우리 무성자음을 발음 위주로 하느라 유기음으로 표기시켜 버린 것을 해방후 미군정 시절 미군들이 본격적으로 사용하면서 이 많은 혼란이 시작되었고, 현행 표기법에서 이것을 잘못 채택함으로써 그 혼란은 가중된 것이다.<sup>3)</sup> 경우에 따라 유성음으로도 소리내어지는 우리말의 특성을 놓고 음성학적으로 따져서 다르게 적어야 옳다느니 하는 것은 일부 학자들의 지나친 자기주장으로써, 심각하게 고려할 가치가 별로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런 유/무성 전환 현상은 다른 외국어들에서도 나타나는데<sup>4)</sup> 어찌하여 우리말만을 시비삼고 있는지, 잠시 생각의 방향을 돌려보면 자명한 노릇이기 때문이다.

이중에서 특히, /ㅅ/을 “ch”로 규정하는 표기 방식에 논란의 여지가 많다. 첫째, “ch”는 서양에서 한가지로 통일되지 않은 발음 표기 중의 하나로, 여기서는 영어식 표기법이 선택된 것이다. 그런데 영어에서조차 이것은 [k]으로 발음되기도 하고 독일어에서는 이 표기는 강한 기음 [x] 또는 [ç]로 발음되고 또 불어에서는 [ʃ]로 발음되는 등, 자못 혼란스럽다. 그럼에도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미루어보면 현행 표기법은 “자주정신에 입각한 로마자 표기가 아니라 사실은 일본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른 영어 자음 표기 방식을 그대로 따른 표기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둘째, 영어에서 “ch”는 ([k]로 발음되는 예외적 경우는 무시한다 해도) 우리말 /ㅅ/자음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tʃ]로 발음된다. 영어에서는 이것을 전통적으로 자음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이것은 그 자체가 언어학적으로 논란이 많은 부분으로서, 우리가 그들의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이론을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다. 셋째, 따라서 /ㅅ/에 대응한 정확한 로마자가 없으므로, 우리는 여기에 적합한 표기를 결정해야만 한다. 위에서 “ch”는 하나의 음절을 표기한 것이지 순수한 자음이 될 수 없음을 알았으니, /ㅅ/에 대응시킬 수 있는 자음으로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 “tz”로 표기함<sup>5)</sup>이 하나의 적합한 방법이 된다고 보겠다.<sup>6)</sup>

- 3) 음성학적으로도 우리말의 /ㅂ/소리는 연한 자질을 지닌 소리이므로 같은 연한 계열의 소리인 영어의 /b/로 나타내는 것이 올바른 발음을 유도해내는 좋은 방안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치는 /ㄱ, ㄷ, ㅅ/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우리말의 /ㄱ, ㄷ, ㅂ, ㅅ/이 초성에서 무성이므로 “k, t, p, ch”로 적어야 한다는 논리는 평면적이고 소박한 근거에 지나지 않는다. (이현복, 말소리 7-8호, 1984)
- 4) 예1. 영어 “getter”에서 /t/는 본래 무성 음소이고 미국식 발음으로는 실제로 [d] 또는 [r]로 발음되어지나 철자로는 어원을 밝혀서 그대로 “t”를 고수하고 있음. 예2. 영어의 “out”을 [아우트]로 /t/를 무성음 취급을 하기도 하나 [아운]하고 종성 처리를 할 수도 있는 것이며 “outward”의 경우에 중간에 오는 /t/는 여전히 종성의 음가를 지닌 채 “-ward”와 연결되므로 유무성 양쪽으로 발음해도 별 탈없이 통하니 어느 쪽으로도 무방한 것이나, 여기서 다른 글자로 구별 표기해야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다.

현행 표기법에서는 우리말의 유기음 /ʔ, ɛ, ɸ, ɛ/의 표기를 위해 구차스러운 어깨점을 첨가하여 구별하는 (2.1.에서 간략히 논했듯이) 자체 모순의 규정을 내놓고<sup>7)</sup> 이 어깨점은 타자시 생략할 수도 있음을 허용하고 있으니, 그 결과가 지금의 혼란스러운 우리의 현실인 것이다.

여기서 필자는 초성의 무성음을 위한 표기가 꼭 필요하다면 그 해결책으로 옛 방식에 /h/를 덧붙여 쓰는 방안을 제안할 수도 있겠으나, 그보다는 이러한 덧붙임 없이 표기해도 외국인들이 별 큰 탈없이 우리 발음에 가까운 발음을 내고, 그것이 비록 유성음이라 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생략해도 좋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 한글 자음 대 로마 자음의 일대일 대응을 쉽사리 기하게 되어, 더욱 편리한 것이다. 현행 표기법에서는 이들 자음이 종성 또는 초성이더라도 두 개 이하 음절일 때는 또 다른 표기 방식을 보이고 있는 등, 한 음운을 두고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 표기를 규정하고 있어 매우 복잡하다.

이외의 자음들 중 /ㄴ, ㅁ, ㅇ, ㅎ/은 별 논란의 여지가 없겠으나, /ㄹ/과 /ㅅ/의 경우를 위해 다음과 같이 통일해 쓰면 좋을 것이다.

/ㄹ/ → (초성) /l/ ; (종성) /ɺ/ (예: 리→Ri, 길→Gil)

/ㅅ/ → /s/ (초성과 종성; 예: 산→San, 곳→Gos<sup>8)</sup>)

### 2.3. 표기법 상의 유의점

현행 표기법 제 3 장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며 표기 상의 유의점들을 장황하게 늘어놓았으나, 그러한 복잡한 것들을 국민 모두가 외워서 정확히 시행할 것을 강제적으로 요구하는 인상을 준 것은 재고할 필요가 많다. 필자가 위에서 기술한 원칙을 따라 모음과 자음의 표기법을 익히면 일목요연하여, 각자 실제로 단어를 표기하는 데 있어 별로 어려움 없이 자유롭게 큰 오류없이 표기하게 될 것이며, 외국인들도 쉽사리 우리말에 상당히 가깝게 발음을 하며 읽을 수 있는 것이다.

또 한가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다. 현행 표기법에서는 고유명사의 표기뿐만 아니라 동사와 명사의 활용까지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쓸데없는 지나친 친절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관광객들을 위해 지명과 인명 등 고유명사만을 로마자로 표기

- 5) 간혹 "ts"가 어미에 올 때 [츠]로 발음되기도 하나 또한 [쓰]로 발음되기도 하니 엄밀한 의미로 /츠/에 대응시키기에 적합하다고 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나, "tz"라면 확실히 구분이 되며 /츠/와 대응된다.
- 6) 그러나, 이것을 전통적으로 써 오지 않았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은 생소하므로 당분간은 형편상 그대로 /츠/을 "ch"로 표기함을 용인할 수도 있겠다.
- 7) 마치 자음 / ㄱ, ㄷ, ㅂ, ㅅ /을 위해 그와 동등한 음가의 로마자 자음 /g, d, b, j/를 쓰면 큰 일이나 나는 듯 억지로 이들을 피하다 보니, 이런 구차스런 일이 생긴 것이다. 참고로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도 1985년에 이미 이와 같이 표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에서 보듯이 별 문제없는 것임.
- 8) 이 종성 표기에 거부감을 느끼는 분을 위해 한마디 부언한다. /ㅅ/이 종성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말의 특징이며 외국에서 우리처럼 사용하는 경우를 아직 보지 못하였으니, 그들 발음 방식으로는 [고스]로 발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글의 로마자 표기」를 논의하고 있음을 상기한다면, 그들이 한국어를 잘못 발음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바로잡아 주면 되는 것이지, 그들 각각의 언어 방식에 얽매일 필요는 없기에, 그들을 위해 /d/로 써 주고 싶은 충동을 눌러야 한다. 우리의 /ㅅ/(종성)은 그것이 말의 끝일 경우에는 /d/과 구분이 안되나, 다음에 모음이 따라오면 그 음가가 분명히 다르게 살아 나음을 유념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해 주면 충분한 것이고, 그들을 상대로 한글을 가르치려는 듯 한글 문장을 구차스럽게 일일이 로마자로 바꿔 써 줄 필요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에게 정확한 한글 발음을 진정 가르치려 한다면, 어설픈 규정을 내걸지 말고 그들에게 익숙한 영어식 발음 표기법 또는 국제음성기호(IPA)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필자의 표기 규칙은, 물론 별 무리 없이, 그대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시해 두는 바이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하나 남아 있다. 어떤 단어에서 한 음절의 종성 [ŋ] 다음에 곧 이어서 모음이 올 경우에, 현행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다 보면 /ng/ 다음에 로마자 모음을 곧 붙여 쓰게 되는 데 그 모음이 앞에 있는 /g/와 붙어서 의외의 발음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점이다. 예를 들어, “용운”이라는 이름을 현행 로마자 표기법대로 “Yongun”으로 쓰면 본래의 의도와는 달리 [연군] 또는 [은군] 등으로 엉뚱하게 발음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이러한 혼란을 피할 수 있는 한가지 독특한 방법이 있다. 즉, 한 단어씩을 묶어 쓰되 음절이 새로 시작 될 때마다 대문자로 쓰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 단어에 대문자가 한 개 이상 쓰여서 익숙하지 않게 보일지도 모르는 표기법은 사실 이상할 것도 없는 것이, 이미 영어에서 MacArthur 또는 McKinley 등에서 쓰고 있고, 또 현대의 자유분방한 상흔에 의해 이미 광고에 상표명, 상호명 등으로 또는 컴퓨터에서도 두 단어를 붙여쓰는 방식을 (예: SunBird) 많이 애용하고 있는 추세를 일차 따른 것이며, 여기에서는 문장의 처음, 고유명사 등 단어의 처음뿐 아니라 음절의 처음에도 확장 응용하자는 것이 다를 뿐이다. 그리고 이렇게 세계에서 유일한 표기법을 쓰면, 외국인들도 곧 어느 다른 나라의 고유명사가 아닌 국적이 분명한 우리 글을 대하고 있음을 한 눈으로도 알 수 있으므로, 우리를 밖에 홍보하는 좋은 부수적 효과도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대문자와 소문자를 사용해서 띄지 않고 표기하면, 우리 국어를 위해서는 별 필요성이 없는 이음표( hyphen, “-”)조차도 우리는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는 또 하나의 부차적 효과도 있다. 현행 표기법에서는 행정 단위 지명에 이것을 꼭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의 가운데에 이것을 넣어 사용하는 경우가 흔히 있으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문서 작업 할 때 얼마나 거추장스러운지는 누구나 경험하여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는 사무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해서라도 합리성, 간결 명료성, 편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규정으로의 전반적인 개정이 절실한 때이다.

#### 2.4. 로마자 표기법의 기본 원칙.

결론적으로 기본 원칙을 세워 말하자면, 우리 자모에 각각 대응되는 로마자를 1:1로 간결 원칙에 입각하여 정해 놓고, 한글 음운을 하나씩 바꾸어 놓으면 만사 쉽게 된다는 것이다. 현행 표기법에서 예로 보인 많은 단어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는 몇 가지만을 골라 다음에 새 표기법으로 바로잡아 보이고, 그 합리성과 분별성을 독자들이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돕기 위해 괄호 안에는 현행 표기법에서 규정한 방식대로의 표기를 첨부하였으니 누구든 새 표기법의 우수성을 쉽게 판단 할 수 있을 것이다.

의정부: EuiJeongBu (Üijǒngbu → Uijongbu; 위중/용부?)

9) 서양어에서 prefix 와 suffix를 위해 그리고 두 개의 성을 하나로 묶어 쓸 때 사용되고 있는, 단어와 음절 또는 단어끼리의 연결 표시임.

김포: GimPo	(Kimp'o → Kimpo; 킴포?)
수원시: SuWonSi	(Suwon-shi; 쑤원쉬? /s/은 다 같은 /s/인데, 어 째서 로마자로는 /s/와 /sh/ 두가지로 표기해야 하나?)
신안: SinAn	(Shinan; 쉬난?)
다음에 계속되는 예제들에서는 오직 괄호 안의 현행 표기의 혼란상에만 주목하기 바란다.	
종로구	(Chongno-gu; 총노구?)
사북읍	(Sabuk-ŭp → Sabuk-up; 싸북업?)
임계면	(Imgye-myŏn → Imgye-myon; 임자이문?)
봉양리	(Pongyang-ri; 풍양리, 폰장리? “표음 주의 원칙”을 따른 다면 “봉양니”로 표기해야 할텐데, 스스로 포기함이 아 닌가?)
구의동	(Kuŭi-dong → Kuui-dong; 쿠위동?)
대구	(Taegu; 태구, 택우?)
남궁동자	(Namsung Tong-cha; 넘경통취아?)
제주도	(Cheju-do; 체이유도?)
독도	(Tokto; 톡토? 여기서 “도”를 “-do” 대신 “-to”로 표기한 것도 문제임!)
안압지	(Anapchi; 아냅치? 애냅치?)

### 3. 맺음말

우리말의 로마자 표기에서 표음주의 원칙을 일괄적으로 적용 규정해서는 안되므로 반드시 제한적으로만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철자 위주 방식은 그 몇 가지 단점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필자는 이런 모든 애로점들을 포괄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임을 여기서 분명히 하고 싶다<sup>10)</sup>.

#### <참고문헌>

1. 국립국어연구원, 한국어문규정집, 1995.
2. 김기중, “한국의 로마자 표기 통일에 관한 일고,” 아세아학보 제14집 별책, 아세아학술 연구회, 1980.
3. 김복문, 한·일 로마자 표기의 비교연구, 무역출판사, 1996.
4. 이현복, “로마자 표기법 개정시안의 문제점,” 말 제4집,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1979.
5. ———, “한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말소리 제3호, 대한음성학회, 1981.
6. ———, “뿌리깊고 국적있는 언어정책을 바란다.-로마자표기는 현행대로 지켜야-,” 말소리 제 5호, 대한음성학회, 1982.
7. ———, “새 로마자 표기법에 개한 평가,” 말소리 제7-8호, 대한음성학회, 1984.
8. Wells & Colson 원저, 이현복 번역, 음성학-이론과 실제, 탐구당, 1995.

10) 본 논문과 관련하여 좋은 토론을 통해 고견과 격려를 주신 이현복교수와 이영상박사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탈고를 위해 수고해준 공정혜양과 그외에도 음양으로 도움을 주신 많은 이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표한다.